

언어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교육 내용화 방향 제안 — 대우법을 사례로

이진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과정(제1저자)

오지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수료(공동저자)

- I. 문제 제기
- II. 타당성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III. 타당성 교육 내용화의 방향
- IV. 대우법을 활용한 타당성 교육 내용화의 사례
- V. 맺음말

I. 문제 제기

(1) 국어학, 언어학의 관점에 대한 문제 제기

“언어학자들은 준비법의 사용을 바르거나 바르지 않음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바르다’는 말은 순수하게 문법적인 의미와 규범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물건에 ‘-시-’를 붙이는 것(천원이세요)은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규범이 잘 작동하는 정상적인 사회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가정하게 된다(김현경, 2015: 135).”

본고는 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어교육 연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답변으로서 출발하였다. (1)은 인류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어학의 대우법¹⁾ 기술에서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면모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1) 본고에서 국어의 높임 표현을 일컫는 다양한 술어들 중 ‘대우법’을 사용하는 까닭은 언어를 통해 위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중립적인 술어로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호간의 위계 자체에 대해 의문하고 비판하는 언어적 실천까지를 포괄하기 위함이다. ‘높임

지적한다. 확장하여 보자면 언어학이 정제되고 표백된 언어를 다루는 데 골몰하여 이데올로기, 힘의 관계 등을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기실, 언어학자와 언어교육학자들은 이러한 비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쇄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언어학,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비판적 언어인식(Critical Language Awareness, CLA) 등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국어교육 연구자들 또한 언어에 반영된 사회의 권력 관계,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점을 ‘타당성’으로 개념화하고(구본관·신명선·서혁·이도영·민병곤 외, 2014; 김은성, 2006; 신명선, 2008, 2011 등), 그 실행 방안을 고민해 왔다. 그러나 (1)에서 보듯 외부의 연구자들 및 언중들은 여전히 우리가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객관적이며 표백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서 타당성의 교육 내용화가 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언어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서 타당성이 존재한다는 일련의 제안 이후, 타당성 자체에 대한 이론적 천착과 논구보다는 이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되어 버린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타당성이 방법이나 수단이 아닌 ‘언어에 대한 관점’이라는 데(김은성, 2005, 2013; 신명선, 2008, 2011) 다시 주목하며,²⁾ 언어에 대한 관

법’, ‘경어법’, ‘존경법’, ‘겸손법’ 등은 낮은 대우와 높은 대우 중 일방만을 함의하여 대우의 양상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고(임흥빈·장소원, 1995: 372) 판단하였고, ‘존비법’은 누군가를 ‘존중하게’ 또는 ‘비하하게’ 대한다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더 잘 담아내는 술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상호 간의 대우가 꼭 높이거나 낮추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아 선택하지 않았다.

- 2)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타당성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짚겠다. 첫째, 본고에서 타당성은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 규정된다.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서 타당성은 언어에 대해 속성이나 성격을 따져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의 지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 CDA 및 CLA 교육이 아닌 ‘타당성 교육’을 초점화한다. 타당성 교육과 CDA 및 CLA 교육은 이론적인 관점과 지향점을 공유하나, CDA와 CLA 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국어교육적 가치를 집약한 술어가 타당성이라고 판단하였기

점으로서는 타당성이 제기된 맥락을 풍부하게 복원하여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고의 연구 문제는 언어와 권력 및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루는 관점으로서 타당성을 교육 내용화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그 사례를 보이는 것이다.³⁾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먼저 타당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을 살핀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타당성을 보다 총체적, 본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 내용화의 방향을 제안한다. 끝으로 IV장에서 대우법을 사례로 교육 내용화의 방향을 구체화한 후,⁴⁾ V장에서 논의를 요약하고 한계를 밝힌다.

II. 타당성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 논의에서 타당성이 교육적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서의 타당성을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하에, 타당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삼는 연구들은 두 부류로 대별된다. 첫째, 타당성의 관점을 처음 제안한 CDA나 CLA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그 원리 또는 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연구(김규훈·이원영·김효연, 2018; 김누리, 2015; 김유미, 2014; 김효연, 2021; 문종철, 2016; 심영택, 2013; 양영희, 2017; 장성아,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확성-적절성-타당성’의 계열이 국어교육학계 내에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타당성이 ‘분석’이나 ‘인식’과 달리 해석에서 나아간 실천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

- 3)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관점이 교육 내용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다. 교육 내용과 관점을 분리하여 보자면, 관점은 낱말의 교육 내용들을 통어하는 요소이므로 관점과 내용은 서로 다른 층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동원되거나, 교육의 결과로 남는 모든 것이 교육 내용이라고 본다.
- 4) 대우법에 주목하는 근거 및 이점에 대해서는 IV장에서 후술한다.

2015)와 둘째, CDA 및 CLA에서 제안된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서의 ‘타당성’을 분리하여 그 자체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연구(김규훈, 2019 ㄱ; 김규훈, 2019 ㄴ; 김규훈, 2022; 신명선, 2011; 신명선, 2020; 양세희, 2018; 조진수, 2015)이다.⁵⁾ 위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기존 논의의 한계는 네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1. 비판적 담화분석 모델 적용에의 치중

비판적 담화분석을 국어교육에 적용하고자 한 연구들 중 다수는 Fairclough(1989/2011, 2010)가 제안한 ‘텍스트 분석(기술) - 담화 수행 분석(해석) - 사회문화적 수행 분석(설명)’의 3단계를 확장하여 교육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그 양상은 (2)와 같다.

(2) CDA 3단계의 적용 양상 (각괄호 안이 Fairclough 3단계 분석에 해당)

- 가. 김유미(2014): 인식 확장 - [언어적 실현 분석 - 사회적 맥락 분석 - 언어적 실현과 사회적 실재의 연관성 해석 및 문제점 비판] - 확인 및 내면화
- 나. 김누리(2015): [표면적 의미 기술하기 - 사회적 맥락 파악하기, 필자의 의도 해석하기 - 이데올로기 설명하기, 사회적 실천하기]
- 다. 장성아(2015): 배경 설명 - [텍스트 분석 - 담화 행위 해석 - 사회문화적 실천 설명] - 저널 쓰기
- 라. 문중철(2016): 준비하기 - [표면적 의미 분석하기 -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 언어적 실천하기]
- 마. 김규훈 외(2018): [언어의 의미기능을 파악하는 능력 - 언어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 언어에 담긴 의도를 인식하는 능력]⁶⁾

5) 김은성(2005, 2013)과 같이 비판적 언어인식 혹은 타당성의 개념, 관점 등을 소개한 연구는 논외로 한다. 타당성의 이론적 배경과 교육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이를 교육 내용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보완점을 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바. 김규훈(2020): [신문 텍스트에 사용된 중심 어휘의 틀 분석-어휘의 틀이 부각하는 신문 텍스트의 의미 이해-신문 텍스트가 배태한 사회적 힘의 관계 인식]

국어교육 분야에서 CDA, CLA에 대해 단계 및 모형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온 까닭은 수행되는 활동을 통해 그 요소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김규훈 외, 2018: 322)인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 내용화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할 것인가에 답해 주는 명확함이 3단계 분석 모형이 갖는 장점인 것이다. 나아가 양영희(2017)에서와 같이 CLA의 언어관을 교육 내용에서 배제하고 교수·학습 방법만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양영희(2017: 264)는 CLA의 언어관이 힘과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편협하게 선정하여 학습자들의 언어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판적 언어인식을 교수·학습법 차원으로 제한하여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CLA가 “학습자가 사회적 실천의 한 도구인 언어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험적 능력을 의미(Fairclough, 1995: 16)”하며, CDA는 이러한 언어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할 때, CLA의 언어관과 방법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수행의 명확함과는 별개로, 이와 같이 교수학습 실행의 과정에 방점을 둘 경우 교육 내용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궁구는 간과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텍스트에 대한 분석 단계를 교육 내용화의 기준으로 삼을 때 ‘언어에 대한 타당성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텍스트에서 타당성의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혹은 ‘해당 텍스트에서 사회의 이데올로기, 힘의

-
- 6) 김규훈 외(2018)에서는 언어인식의 능력 범주 추출에 있어 CDA의 3단계를 활용하고 있다. 비판적 담화분석의 수행 차원이 아닌 능력의 추출에 CDA의 3단계를 사용한 것이 ‘요구되는 수행을 통해 능력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아 함께 제시하였다.

관계를 반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와 같은 의문에 골몰하게 된다. 이처럼 교수학습 방법, 모형 차원에서만 CDA, CLA 논의가 이어질 때 이론의 본의라 할 수 있는 언어관인 타당성은 매우 한정적으로 반영되거나, 나아가서는 반영되지 않고 방법 차원에서만 피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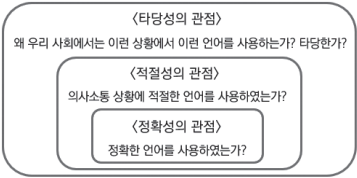
2. 언어에 대한 세 관점의 누진성, 상호작용성 간과

언어에 대한 세 관점으로서의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은 언어를 대하는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는 차이가 있으나,⁷⁾ 기본적으로 김은성(2013: 146)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입체적 누진”의 구도를 가진다. 즉, 이들은 어떤 언어 현상에 누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점이며,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하기도 한다.⁸⁾

그런데 기존 연구들이 언어의 타당성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이와 같은 고려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지미론의 틀 의미론, 개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어휘의 타당성을 다룬 김규훈(2019ㄱ, 2019ㄴ, 2022)에서 어휘 사용의 타당성을 해석해 내는 과정을 살펴보자. 김규훈(2019ㄴ: 25)에 제시된 기사문에 사용된 어휘의 타당성을 따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⁹⁾

7) 신명선(2011: 90)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의 관점을 어휘가 아닌 언어 전반으로 확장하여 환언하자면 아래와 같다.

언어 사용의 정확성이 언어 사용의 규범성 및 정교성, 언어 체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다면, 언어 사용의 적절성은 사용역 및 청자, 독자 등 맥락의 고려, 타당성은 사회적 편견 및 관습, 권력 관계 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의문과 관련된다.



8) 본고에서 정의하는 언어에 대한 세 관점의 중첩성, 상호작용성이 무엇인지는 3장에서 사례를 들어 보다 자세히 논의한다.

9) 이러한 논의의 구체화는 김규훈(2019ㄱ, 2022)을 참고할 수 있다.

〈표 1〉 기사문의 어휘 타당성 평가 과정(김규훈, 2019ㄴ: 25)

1. '표제'를 통해 기사문의 화제(topic) 확인하기	
2-A. '전문'과 '본문'을 통해 기사문의 화제에 관한 방아쇠 단어 찾기	2-B. '표제'의 화제에 대한 은유 표현의 의미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3-A. 방아쇠 단어가 촉발하는 틀이 부각하는 의미에 대하여 파악하기	3-B. 화제에 어떤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은유 표현을 사용했는지 생각하기
4. 중심 단어의 틀과 화제에 대한 은유 표현을 바탕으로 필자의 의도 추론하기	

이러한 제안은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추적해 가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이 논문의 취지가 어휘의 '타당성'을 초점화하여 살피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그 논지가 정확성, 적절성과 분리된 층위로서 타당성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 역시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을 초점화하기 위해 내용 및 주제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바로 특정 언어 표현의 타당성을 해석해 내는 것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타당성이 정확성과 적절성 위에 중첩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관점이며 이들 세 층위가 서로 영향 관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CDA에 기반을 두고 Fairclough의 3단계 분석 모델을 따르는 연구들 역시 이러한 한계점을 공유한다. 이들은 세 단계를 통해 언어 표현의 정확성,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적절성, 이데올로기를 고려한 타당성을 누진적으로 포착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므로 '같은 언어 표현이 각각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와 같이 그 누진성은 일부 살필 수 있을 것이나 텍스트 한정적인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서는 이들 세 관점이 영향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은 포착할 수 없다.

3. 사회와 언어 간 영향 관계의 상호성 간과

언어 사용을 타당성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분석한다', '해석한다'고 할

때, 그 전제는 언어에는 사회, 권력, 이데올로기 등이 ‘반영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언어라는 관점에는 사회와 언어 간의 상호적 구성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Fairclough & Wodak(1997: 258)의 지적대로 담화적 사건은 상황, 제도, 사회 구조 등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담화적 사건이 그들을 형성하기도 하며, 담화는 사회적 현상(status quo)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을 돕고 사회적 구조를 변형하는 데에 기여하므로 사회를 구성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특정 텍스트 혹은 그 속의 어휘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읽어 내려’ 하는 기존의 연구들(김누리, 2015; 김유미, 2014; 장성아, 2015; 문종철, 2016; 김규훈 외, 2018; 김효연, 2021 외 다수)은 언어가 어떻게 사회를 반영하는지만을 다루고 있다. 특정한 언어 사용에서 사회의 어떠한 일면을 해석해 낼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생산된 텍스트는 사회에 모종의 의미를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인 텍스트 혹은 어휘가 결국 그 사용을 통해 사회를 다시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화의 과정에서 언어를 통한 사회의 구성에 대한 고려나 언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즉, 담화는 본질적으로 사회와 쌍방향적인 영향 관계 속에 있으나, 이를 교육 내용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일방만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4. 언어를 ‘통한’ 실천에의 치중

CDA, CLA 논의에서는 ‘언어적으로 어떠한 선택, 실천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CDA의 초기 논의라고 할 수 있는 Clark et al.(1990: 250)에서 CLA를 학습하는 데에서는 ‘실천과 통합된 지식(Knowledge integrated with practice)’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나, Fairclough(1989/2011: 438-444)에서 “언어교육을 위한 적합한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경험을 되돌아보기-경험을 체계화하기-설명하기-실천

을 통해 항상시켜 나가기'라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에서 CDA, CLA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그 타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실천을 꾀하도록 하는 것임을 방증한다.

‘언어적 실천’이라는 술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를 언어를 ‘통한’ 실천과 언어에 ‘대한’ 실천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¹⁰⁾ 즉,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언어를 활용하여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하는 것’이 전자에 가깝다면, ‘언어 선택에 내재해 있는 이데올로기를 인식함으로써 어떤 언어 사용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에는 수많은 언어 선택이 결부된다는 점에서 후자가 전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어떤 텍스트를 생산할 것인가와 어떤 언어 자원을 선택할 것인가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는 교육 내용화의 방향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기존 연구들 역시 교육 내용화에서 실천으로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두 범주 중 ‘언어를 통한 실천’ 즉, 언어인식을 바탕으로 한 텍스트 생산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 양상은 (3)과 같다.¹¹⁾

(3) 기존 연구에서 언어적 실천의 사례

가. 심영택(2013): 소감, 추가 질문, 비평 활동 등 목적성이 있는 담화를 학습자 스스로 개발하기.

나. 장성아(2015):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는 ‘줄거리(summary)’ 쓰기,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비판(reflection)’ 쓰기

10) 이러한 명명은 Halliday가 ‘언어 학습’과 ‘언어를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language)’, ‘언어에 관한 학습(learning about language)’를 구분한 것(구본관, 2012: 261)을 참고한 것이다.

11) CDA 관련 초기 논의라 할 수 있는 Fairclough(1989/2011: 446)에서 제시하는 실천의 사례 역시 ‘소수집단 언어로 여성과 청소년 같은 소수자들의 역사 집필하기’이다. 즉, 언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고양을 바탕으로 담화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언어적 실천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 김누리(2015): 자신의 관점을 취하고, 비평문, 토론문 등의 글쓰기를 하거나 캠페인 등의 사회적 참여로 연결함.

라. 문중철(2016): 확장된 인식을 언어적으로 표현해 보는 기회로 발표, 학급 게시판, 블로그 등을 활용한 언어적 실천.

위의 논의들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비평, 요약, 교수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혹은 발표 등이 ‘언어를 통한 실천’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즉, 여기에서는 ‘언어에 대한 실천’, 즉 ‘어떤 언어를 택하고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III. 타당성 교육 내용화의 방향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주장하는 타당성 교육 내용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은 앞서 제안한 비판점들과 각각 대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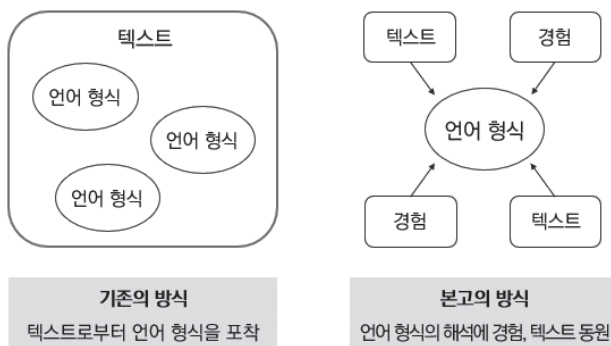
1. 타당성은 교수학습 방법이 아닌, 언어에 대한 관점이다.

앞서 타당성에 대한 교육적 적용이 CDA, CLA 모형이라는 수행 방법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천착이 부족하였음을 논하였다. 실제로 CDA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그 방법적 실행보다는 관점으로써 참조하는 것이 더욱 유의미함이 지적된 바 있다. 최운선(2014: 30)에서는 CDA가 연구방법론이라기보다는 관점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만 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CDA의 방법론은 열려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도 타당성은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서의 타당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방식은 어떠한 언어 현상을 중점에 두고 그를 해석하기 위해 경험, 텍스트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기존 연구들이 텍스트를 하나의 경계로 설정하고 그 내부에 있는 언어 형식을 해석의 자원으로서 추출해 내는 방식을 취했다면, 본고는 보다 ‘언어 형식 중심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언어 형식의 타당성을 해석해 내기 위해 학습자들이 문학, 영화, 국어학적 지식 등 다양한 텍스트와 함께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에 대해 인지했던 경험을 동원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컨대 하나의 기사문에서 피동 표현이 사용되는 양상을 통해 기자가 목소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거나 행위의 주체를 은폐하여 논조를 형성한다는 의도를 읽어내는 방식이 전자에 가깝다면, 본고는 피동 표현이라는 언어 형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사용과 관련한 학습자의 경험, 기사문에서의 사용, 학술적인 글에서의 사용, 연설문에서의 사용, 드라마 혹은 소설 등 예술에서의 사용 등을 두루 참조함으로써 보다 언어 형식에 초점을 두는 후자와 같은 방식의 탐구가 가능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물론 텍스트로부터 언어 형식을 포착하는 기존의 방식과, 언어 형식을 해석하는 데 경험¹²⁾과 해석을 동원하는 본고의 방식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출발점과 방향이 다르며, 언어 형식에 대한 주목도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폭에도 차이가 있다.

12) 경험 역시 하나의 텍스트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텍스트와 구분한 것은 글, 영상 등 이미 생산된 텍스트가 아닌 학습자의 일상 경험이 탐구의 자원으로 포섭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 타당성에 대한 언어 형식 중심의 접근

언어 형식 중심의 접근 방식은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서의 타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타당성을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 전제하는 것은 언어 형식 중심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언어 형식 중심의 접근은 언어관으로서의 타당성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향이다. 이러한 접근의 이점은 학습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 그중에서도 경험을 동원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언어생활과 관련성을 긴밀하게 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동기화에 유리하다는 점, 학습자들이 타당성 해석의 과정을 통해 언어 형식과 관련한 실천을 기획해 볼 수 있다는 점, 언어 형식에 대해 특정 텍스트 안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필요 없이 보다 시간적, 상황적으로 확장된 면모들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2.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서 타당성은 정확성, 적절성과 누진적,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는다.

앞서 기존 논의들이 언어에 대한 세 관점 즉,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의 중첩성과 상호작용성을 간과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세 관점의 중첩성이란 김은성(2013: 143-146)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타당성이 “정확성, 적절성의 관

점과 배제적, 단속적 혹은 평면적 추가의 관계가 아닌 입체적 누진의 구조” 안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 층위들은 서로 연속적이며, 어떤 언어 현상을 볼 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층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의 세 층위가 이처럼 연속적, 다층적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세 층위 간의 상호작용성을 잘 보여 주는 사례로는 장애인 관련 어휘 사용을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다. 우선 정확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장애우’는 표준국어대사전¹³⁾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며, 따라서 정확성의 관점에서 장애우는 규범 안에 정착되지 못한 조어다. 동시에 장애우는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제안된 조어인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1987년 설립과 함께 불구자 등의 표현이 쓰이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안하고 적극 권장한 단어이기 때문이다(서상범·이영돈, 2016). 이에 장애우가 장애인을 지칭하기에 적절한 술어라는 인식이 생기는 듯했으나, 장애우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타자화하며, ‘친구로 여겨 주겠다’는 시혜적 관점에 바탕하고 있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비판이 일면서 장애인이라는 술어가 보다 중립적이라는 시각이 재정착되었다.¹⁴⁾ 즉, ‘장애우’라는 명칭이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가에 대한 타당성 차원의 의문이 사회적으로 거듭 제기되었고, 이후 장애인을 지칭하기에 적절한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절성 차원의 판단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영향 관계가 정확성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유사한 사례를 장애인과 관련한 어휘의 표준국어대사전 풀이가 변화하는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

13) 물론 사전의 등재 여부나 뜻풀이가 정확성의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표준’이라는 사전의 명칭에서 드러나듯, 국어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은 정확성의 기준이 되는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다.

14) 나아가 ‘장애인’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의문하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영어에서는 장애인을 ‘disabled people’이 아닌 ‘physically challenged’, ‘differently abled’ 등으로 칭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제안이 이루어진 바 있다.

다. 1999년판의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에는 ‘귀머거리, 장님, 절름발이’ 등에 대해 그들이 가지는 결핍적 특징만을 서술하고 있는 반면,¹⁵⁾ 현재의 표준국어대사전(2022년 9월 29일,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 기준)에는 이 단어들의 풀이에는 모두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명칭이 비하적, 차별적이라는 인식이 신장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언어에 대한 세 관점이 역동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요컨대, 언어의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은 서로를 의문, 비판하며 때로는 변화시키는 길항 관계 속에 자리한다.¹⁶⁾ 이러한 길항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언어의 정확성과 적절성이 사회적인 기원(social origins)을 가지는, 자연화된 질서(naturalized order)이기(Clark et al., 1990: 250) 때문이다. 즉, 현재 정확하거나 적절하거나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에는 사회적으로 ‘자연화’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언어적 질서의 사회적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지향(historical orientation)’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언어의 과거와 미래를 그 사회적 결정 요인 및 영향과 연관 짓는 것(Clark et al., 1991: 43)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Ivanic(1990: 126)에서 언어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주요한 것은 변화의 개념이며, 언어는 사회적 압력에 지속적, 역동적으로 반응하며 개선되거나 악화된다고 한 것에서도 재확인된다.¹⁷⁾

15) 1999년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귀머거리’를 ‘귀가 어두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장님’은 ‘맹인’으로, ‘절름발이’는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걸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하는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다.

16) 이때, 언어의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이 이루는 길항 관계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본고에서 미진한 지점이다. 각 관점이 다른 관점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각 관점을 추동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17) 이를 낙관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에게는 언어가 사용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리하자면, 타당성의 관점은 언어와 결부된 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과정적, 실천적’ 속성과 그를 통한 변화를 중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타당성은 독립된 관점이 아니라 정확성, 적절성과의 누진적·상호작용적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타당성에 대한 탐구와 해석 또한 공시적, 정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적확할 것이다.

3. 타당성의 관점에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다.

앞서 사회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 일방만이 기존 교육 내용에 반영되어 왔고, 언어의 사회에 대한 소구는 주목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언어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은 다수 존재한다. PC어(Political Correctness Language)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PC어란 성별,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나이, 문화 등의 측면에서 차별과 편견과 증오가 실린 단어와 표현들, 즉 차별언어에 대한 대안어(박혜진, 2021: 59)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사례는 <표 2>와 같다.

〈표 2〉 공정언어 사례(박혜진, 2021: 65 일부)

	불공정 언어(차별언어)	공정언어(대안어)
ㄱ	하청업체	협력업체
	결손가정	한부모가정
ㄴ	에이즈환자	HIV감염자
	노인	시니어

이와 같은 PC어 운동은 언어와 사회 간의 상호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언어에 사회적 가치판단이 반영됨은 물론 언어가 사회적 편견을

반영할 경우 다른 언어사용을 통해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한편, 위의 ㄱ과 ㄴ으로 분류된 것은 해당 조어가 불공정 언어로 여겨지게 된 것이 언어 형식 때문인지, 혹은 언어 형식은 중립적이거나 사회적 인식이 해당 형식에 침투하였기 때문인지에 따른 분류이다. 즉, ㄱ은 언어 형식 자체가 차별적이라면, ㄴ의 경우 언어 형식에 차별적 관점이 내재한 것은 아니나 부정적 인식과 사용이 이어지면서 해당 형식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박혜진, 2021: 66).

이처럼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여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반영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PC어와 같은 언어적 변형을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언어적 전복의 시도는 민현식·구본관·민병곤·김호정·권순희 외(2019: 232)에서 가치 하락에 따른 어휘 변화의 사례로 ‘식모-가정부-가사도우미-홈매니저’를 언급한 것과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언어와 사회의 영향 관계가 쌍방향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 역동적임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앞서 논의한 상호작용성과 여기서 사례를 통해 살핀 쌍방향성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요컨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의 선택에는 어떠한 사회를 이상적으로 여기는가의 인식이 반영되며, 언어 선택은 그러한 이상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언어로부터 사회로 향하는 영향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렇게 볼 때, 학습자들의 언어 실천은 사회와 언어의 역동 속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4. 타당성은 언어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진다.

앞선 논의에서 ‘언어를 통한 실천’이 아닌 ‘언어에 대한 실천’이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때 언어에 대한 실

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¹⁸⁾ 본고가 상정하는 언어에 대한 실천이란 ‘언어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성질을 인식함으로써, 그를 바탕으로 한 언어적 선택의 결과를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타당성에 기반한 언어 선택이 무조건적인 해방, 전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한다. 그 근거는 (4)와 같은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4) CLA는 언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how to use language)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self-assurance)을 줄 수 있다. 이때 자신은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선택들을 알고, 그 결과를 아는 것을 말한다. 비판적 언어인식은 적절성 원리에 따르기를 요구하지 않으나, 동시에 그 반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비판적 언어인식은 사람들이 열린 시각에서(with open eyes) (관습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때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타협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럴 때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독립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관습에 도전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때, 가끔은 그들이 도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이 있을 것이다(Ivanic, 1990: 128, 번역 및 강조는 연구자).

즉, 타당성에 기반한 언어의 실천이란 언어 관습에 대한 도전이라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언어 선택의 의미, 그로 인한 감정, 결과, 정체성 등을 인식하고, 그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위할 수 있는 주체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예컨대, 이중언어 사용자들은 면접과 같이 언어적 관습에 저항하는 것

18) 김은성(2005: 346)에서 지적한바, CLA로 이루어낼 실천의 수준은 인식(awareness)하는데 그치는 것인지,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을 신장시켜 비판적으로 읽고 쓰는 것인지, 언어적 관습에서 해방(emancipation)되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편차를 보인다. 실천의 넓은 의미와 그로 인한 모호함은 교육 내용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본고에서 보는 실천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담이 큰 경우 표준 영어를 쓰기 위해 애쓰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항적(oppositional) 행동을 택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언어적 관습 및 그 권력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점차 관습을 전복하기를 시도해 볼 수 있다(Ivanic, 1990: 130). 이들에게 특정한 언어 사용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언어 사용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Ivanic(1990: 132)에서 제시한 ‘인식을 실천으로 전환하기(Turning awareness into action)’ 체크리스트에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언어적) 변화가 가능한지, 제약은 무엇인지 알기’, ‘특정한 상황에서 언어적 관습에 도전해 볼 것인지 결정해 보기’, ‘원한다면(if you want to) 관습적인 언어적 규범에 저항하기’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본고의 실천은 Ivanic(1990)에 기반하여 정의되며, 따라서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언어사용을 타당성의 관점에서 의미화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IV. 대우법을 활용한 타당성 교육 내용화의 사례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구한 타당성 교육 내용화의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대우법’을 중심으로 그 구체태를 제시하고자 한다.¹⁹⁾ 교육 내용의 소재로 대우법을 선택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우법은 언어의 변화 양상을 잘 보여 주는 문법 범주이기 때문이다. 대우법은 통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

19) 서론에서도 언급한바 이 장에서 대우법을 중심으로 타당성에 대한 교육을 논의하는 것은 김현경(2015)의 문제 제기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이 장의 사례와 논의들이 상당수 김현경(2015)에 기대어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김현경(2015)을 출발점으로 하되 문법교육적인 관점에서 사례와 논의를 확장하고 구체화하였다.

은 문법 범주로 꼽히며(민현식, 2015: 113),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여 온 양상이 빈번히 논의되고 있다(김현주, 2012; 신성철, 2016; 정경재·정연주·홍종선, 2015 등). 둘째, 대우법은 사회적인 관계나 맥락 속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우법이 본질적으로 지위, 나이, 성별, 친밀도 등의 언어 외적 요인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임지룡, 2015: 391)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셋째, 학습자의 구체적인 언어 실천과 밀접한 ‘일상의 국어(고범혜, 2009: 12)’로, 학습자들이 대우법의 실천과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후술할 것인바 대우법이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변화가 완료된 양상과 진행 중인 양상을 함께 보여 주는 문법 범주라는 것과 관련된다.

아래에서는 대우법의 교육 내용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대우법의 변화를 고찰한다. 그리고 대우법을 교육 내용화하는 구체태를 교수·학습 개요를 통해 보일 것이다.

1. 대우법의 교육 내용화를 위한 고찰²⁰⁾

현재 문법교육에서 대우법은 ‘높임 표현’으로 다루어진다. 박혜진(2022: 35-39)에 따르면 현행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문법 지식을 최소화하여 교육 내용을 소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높임 표현은 “말하는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민현식·신명선·오현아·이지은·안장호 외, 2018: 162)”와 같이 정의되며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에 대한 지식이 간략히 소개된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상대 높임 체계에 따른 어미 활용표를 보이며, 다수의 교과서에

20) 본 절에서 대우법의 통시적 변화를 다소 세밀하게 다루는 것은 대우법 일반의 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변화에 개입한 신분, 나이 등 사회적 권력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들에 주목함으로써 타당성 교육 내용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함이다.

서 소위 ‘사물 높임’이라 불리는 ‘-시-’의 과도한 사용을 초점화하고 있는데(박혜진, 2022: 39), 이는 오현아(2014)와 같은 연구에서 청자 높임 ‘-시-’에 대한 교육적 주목을 촉구한 것과 맞닿아 있다.

대우법에 대한 현재의 교육은 공식적인 현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확성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다소 협소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대우법이 끊임없이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변화해 온 역동적인 문법 범주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아래에서는 선행 논의 및 문학 텍스트, 실제 및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대우법의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현대국어에서 대우법은 신분제에 의한 계급 사회가 무너지고 민주사회가 자리 잡으면서 상대높임법의 등분 구별이 약화되고 ‘해요체’, ‘해체’를 중심으로 단순화된 것으로 여겨진다(민현식, 2015: 113). 조선은 반상(班常)의 구별이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며, ‘신분’은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존대와 하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점차 신분에 의한 존대와 하대가 사라졌으나, 그 과정에서 상민에 대한 하대가 남아 있었다. 주목되는 점은 근대화와 함께 상민에 대한 하대가 노동자 계층에 대한 하대로 변모하여 나타났다(김현경, 2015: 102)는 것이다. 대우법의 사용 요인으로서 신분이 약화되고 직업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흔적을 (5)와 같은 근대문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운수 좋은 날」의 인력거꾼과 손님 간 대화

가. “인력거!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일 원 오십 전만 줍시오.”

“일 원 오십 전은 너무 과한데.”

“아니올시다. 잇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사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 날에 좀 더 주셔야지요.”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나. “아씨, 인력거 아니 타시랍시요?”

“아씨, 정거장 애들보담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택이 어디신가요.”

“왜 이래, 남 귀치않게.”

(5)는 「운수 좋은 날」에서 인력거꾼인 김첨지와 그 손님들 간의 대화이다. (5)에서는 상대적으로 김첨지가 손님을 언어적으로 더 높게 대우하고 있다. 손님인 경우 김첨지에게 (5가)에서처럼 해요체를 사용하거나 (5나)처럼 해체를 사용한다. 그러나 김첨지의 경우 손님에게 합쇼체를 사용한다.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결합 여부도 명확히 대비된다. (5)에서 인력거꾼인 김첨지와 손님들의 신분이 서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존대와 하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력거꾼과 손님이라는 ‘직업’에 의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누더기에 비를 맞으며 인력거를 끄는 김첨지와 양복을 입고 도시를 활보하는 손님들 사이에는 반상의 구별과 유사한 위계가 존재한다(김현경, 2015: 134).

그러나 ‘직업’에 따른 대우법 사용은 더 이상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직업에 따른 대우법 사용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합의에 도달한 결과이다. 앞서 신분이 더 이상 대우법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게 되었듯, 신분(반상)과 일부 대응하여 잔존하던 직업에 의한 위계도 타당성의 관점에서 의문시되어 사람들이 무엇을 적절하다고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동시에, 대우법의 사용 요인으로서 ‘직업’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직업에 따라 존대가 요구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6)과 같은 사례가 그 예이다. (6)은 사물을 높이기 위해 ‘-시-’를 사용하거나 ‘-실게요’와 같은 어미를 사용하는 경우이며 서비스업종 담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관련한 연구들은 발화자들이 형태가 문법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절함, 공손함이 기대되는 서비스 상황의 특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고 보고한다(이수연, 2012). 결국 (6)과 같은 현상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소비자에 대한 존대에서 비롯되며, 이때 소비자들은

돈을 대가로 존경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념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최근 높임법 사용의 예(안주호, 2022: 123)

가. (점원이 손님에게) 이 제품은 40% 세일이십니다.

나. (치과에서 환자에게) 가볍게 양치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사회와 비교할 때 현대 사회에서는 대우법 사용 요인으로서 ‘직업’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아래의 (7)과 (8)은 오늘날 택시 기사와 승객 간의 대화를 가정해 본 것인데, (5)에서 존대의 사용이 인력거꾼에서 손님으로 향하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7~8)에서는 기사와 승객 양측 모두의 발화가 존대부터 하대까지의 형식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때 (7)과 (8)에서 같이 가장 광범위하고 탈없이 수용되는 것은 (7가)나 (8가)이며, 적어도 높임의 형태를 갖춘 (7가~다)와 (8가~다)가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수평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는 현대에는 친분 관계가 없는 타인과 대화할 때 상호 존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7) 택시를 탄 상황에서 승객이 기사에게

가. 선생님, 서울역 부탁드립니다.

나. 기사님, 서울역 가 주세요.

다. 아저씨, 서울역이요.

라. 서울역.

(8) 택시를 탄 상황에서 기사가 승객에게

가. 선생님, 어디로 모실까요?

나. 손님, 어디로 가세요?

다. 어디로 가요?

라. 어디로 가?

(7)과 (8)에서 상호 존대가 가장 무너지는 상황은 각각 (7라)와 (8라)인데, 이러한 상황도 택시 기사와 승객 중 한쪽이 압도적인 연장자일 경우 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신분이나 직업이 개입하지 않을 때 대우법의 사용 요인으로 ‘나이’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존대가 손윗사람에게, 하대는 손아랫사람에게 쓰인다고 할 때 손윗사람과 손아랫사람은 ‘나이나 항렬 따위가 자기보다 위/아래이거나 높은/낮은 사람’이라고 풀이된다. 대우법의 사용을 결정할 때 항렬은 혈족 사이에서만 따질 수 있으나 나이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한국인들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실례를 무릅쓰고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대우법 사용에 있어 나이가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기 때문이다(김현경, 2015: 102)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대우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나이’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결정되는 것을 ‘나이주의(ageism)’라고 하여 비판한다(공현, 2012). <그림 2>와 같은 사례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반말이나 하대를 하는 것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보여 준다.

일상 언어 속 나이 차별 문제 개선 캠페인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

- 01 나이 어린 사람(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반말, 하대를 하지 마십시오.
- 02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이 어린 사람을 부를 때, 존칭(OO님, OO씨 등)을 사용하십시오.
- 03 친한 사이가 아닌 어린이·청소년에게 ‘오친구’라고 부르지 말고 정중하게 대화하십시오.
- 04 어린이·청소년의 물이나 물건 등에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존중하십시오.
- 05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거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대화, 평가 등을 나누지 마십시오.

JE 한국언어문화재단 **지평**

<그림 2> 대우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나이’에 대한 거부

나아가 대우법이라는 문법 범주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국어의 준비어 체계가 근본적으로 ‘한쪽을 높이는 동시에 한쪽을 낮추는 차별적(정동규·이성민·윤여경·권지현·권정현 외, 2021: 16)’인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대우법이 위계 관계와 차별을 촉발한다는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대우법에서 벗어난 소통 방식, 다시 말해 기업에서의 별명 사용이나, 수평어 또는 착한 반말, 평어 등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정동규 외(2021)에서 소개하고 있는 평어의 예는 (9)와 같다.

(9) 평어의 예

가. 지영, 잘 지냈어?

나. 천만에,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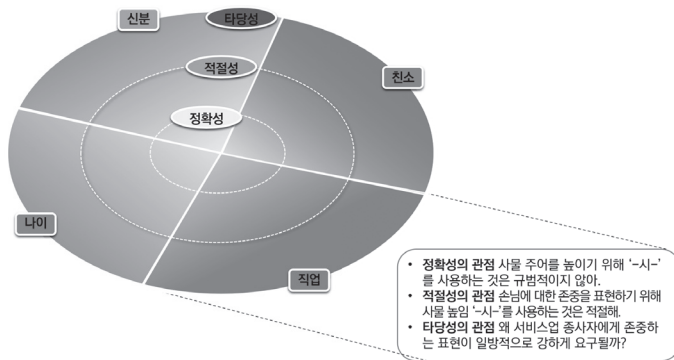
평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선배, 언니’ 등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호격 조사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성이 아닌 이름만을 부르며, 해체²¹⁾로 간결하게 말한다. 이들은 평어가 “존댓말도 반말도 아닌(정동규 외, 2021: 8)” 언어라고 보며, 이를 통해 서로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평어의 사용은 대우법을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친소 관계’ 역시 해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소 관계’는 현대국어에서 대우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평어의 사용자들은 친소 관계에 따라 대우법의 사용을 조절하는 것을 거부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존대를 사용하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하대를 사용하거나 하는 대신, 진지한 관계 맺기를 위해 존대와 하대의 구분이 없는 반말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평어의 사용자들은 평어를 통해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할 수

21) 본고에서 평어에 대해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계를 가정하는 기존의 상대높임 체계에 평어를 편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어에서 사용하는 중경어미의 형태를 언어학적으로 지칭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정동규 외, 2015: 46).

이상에서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우법의 사용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신분, 직업, 나이, 친소 등이 있으며 이들이 끊임없이 의문시되고, 그 결과 정확하거나 적절하거나 타당한 대우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변화하고 있음을 살폈다. 단순화와 오해를 감수하고 본고에서 주목하는 대우법의 변화와 역동을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의 관점에서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정확성·적절성·타당성 관점에서 본 대우법의 역동

<그림 3>에서 원들은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의 관점을 나타내며, 원을 사분한 면들은 대우법에 관여하는 요인으로서 신분, 친소 관계, 직업, 나이를 의미한다.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의 세 관점이 누진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점점 짙어지는 색으로, 또한 이들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색이 짙어지는 면으로 표현하였다. 우측 하단에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직업과 관련하여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의 세 관점이 접하는 양상을 예시하였다. 정확성의 관점에서 사물 높임 ‘-시-’는 규범적이지 않다. 그러나 적절성의 관점에서 보면 답화 목적 달성을 위해 존중을 언어적으로 극대화한 사물 높임 ‘-시-’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타당성의 관점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존중의 표현이 강하게 요구되는 현상 자체를 문제시할 수 있다. 이때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의 각 관점에서 내린 판단은 서로 밀접

하게 관련된다.²²⁾

2. 대우법에 대한 타당성의 교육 내용화 사례

앞 절에서 살핀 바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대우법의 양상을 그 복잡성과 역동성, 사회와의 관계를 소거한 채로 교육 내용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학습자들이 마주하는 언어사용 상황은 탈색된 문법 설명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언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법 지식이 학습자들의 언어생활에서 의미 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대우법의 특성이 교육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방향은 교육과정, 학습자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활동으로 구현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하나의 안으로 <표 3>과 같은 교수·학습 개요를 보이하고자 한다.²³⁾

<표 3> 대우법에 관한 교수·학습 개요의 예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육 내용화의 방향
도입	◎ 대우법 사용 경험을 수업 장면으로 끌어오기 • 존대 또는 하대를 하거나 받았던 경험 떠올리기 • 대우법 사용을 고민하였던 경험 떠올리기 • 상황, 맥락, 대화 참여자와의 관계 파악하기 • 당시의 감정과 느낌 재인하기	① 타당성은 교수학습 방법이 아닌, 언어에 대한 관점이다.

22) 예컨대, ‘-시-’의 확장적인 사용이 적절하다고 보는 관점이 확대되면 사물 높임 ‘-시-’가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당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반대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손님에게 과도한 존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 사물 높임 ‘-시-’가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23) <표 3>의 교수·학습 개요는 언뜻 ‘대우법에 관한 수업’으로 읽힐 수 있다. 이처럼 ‘타당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것은 타당성이 독자적으로 논의되거나 교육 내용화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타당성을 다양한 언어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 실제 현상과 마주하면서 체득하는 것이 명제적 지식으로서 학습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법의 변화 양상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 좋은 날」과 택시 담화 비교하기 • 서비스업 종사자의 대우법 사용 분석하기 • ‘일상 언어 속 나이 차별 문제 개선 캠페인’ 탐색하기 • 평어의 사용 사례 탐색하기 • 대우법의 사용에서 정확성/적절성/타당성의 관계 탐색하기 ◎ 대우법의 사용을 재해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경험한 대우법에 영향을 미친 요인 해석하기 • 내가 경험한 대우법의 정확성/적절성/타당성 의문하기 • 나의 대우법 사용 경험에서 정확성/적절성/타당성의 관계 살피기 ◎ 대우법의 실천에 대해 고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법의 사용이 고민스러운 상황 떠올리기 • 각 상황에서 대우법 사용에 관여하는 요인 파악하기 • 각 상황에서 타당한 대우법의 사용을 고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타당성은 정확성, 적절성과 누진적,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는다. ③ 타당성의 관점에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다. ② 타당성은 정확성, 적절성과 누진적,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는다. ④ 타당성은 언어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진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법 실천에 대한 생각 공유하기 • 대우법에 대한 생각의 변화 공유하기 • 앞으로의 대우법 실천에 대한 생각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타당성은 언어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진다.

〈표 3〉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활동은 언어 형식을 해석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경험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① 타당성은 교수학습 방법이 아닌, 언어에 대한 관점이다.’와 연결된다. 또한 제시된 사례를 탐색하거나 학습자가 떠올린 문제 상황을 함께 논의할 때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의 관계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②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서 타당성은 정확성, 적절성과 누진적,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는다.’를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대우법의 변화를 살핀다는 점에서는 ‘③ 타당성의 관점에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다.’의 방향과 관련되며, 학습자가 실제로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는 고민을 논의하고 대우법의 실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④ 타당성은 언어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진다.’를 구현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개요는 대우법을 사례로 하여 본고에서 주장한 타당성의 교육 내용화 방향이 교육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이는 역할을 하며, 물론 〈표 3〉과 같은 방식으로만 교육적인 실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²⁴⁾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의 관점은 모든 언어 요소

에 적용될 수 있으며, 본고의 제안은 그에 참고할 수 있는 실마리일 것이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언어와 권력 및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루는 관점으로서 타당성의 교육 내용화 방안을 제시하고 대우법을 사례로 그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판적 언어인식과 함께 타당성의 관점이 국어교육계에 소개된 지 20여 년이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기존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보완점을 발견하고 향후 타당성을 충실하게 교육 내용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면의 제한과 연구자들의 부족함으로 교수·학습의 구체태를 대우법에 제한하여 보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고가 타당성이 대우법에만 적용되는 관점임을 논하고자 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여타 문법 범주들, 나아가서는 언어 전반에 대한 관점으로서 타당성이 유의미하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예컨대, 행위의 주체를 숨기고 객관화하거나 청자의 체면을 살리는 기능을 가진다고 논의되어 온 피동 표현(구본관·신명선, 2011), 타인의 혹은 자신의 목소리를 투영하여 객관화하거나(이슬비, 2016), 타인의 목소리를 해석, 재구성하여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는(박진희, 2020) 장치라 할 수 있는 인용 표현, 상대에 대한 공손성 표현, 발화자의 책임 회피나 거절에 대한 스스로

-
- 24) 대우법 사용 경험에 대한 반추가 아무런 자원이나 선행 지식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학습을 원활히 해 나가기 위해서 제공되어야 하는 교사의 발문이나 문제제기 등이 학교급, 학습자 수준 등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 등 위의 교수·학습 개요는 실행에 앞서 그 실행의 대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의 체면 보호 전략 등을 위해 자신의 문장 유형을 조정하는 간접화행(조용준, 2017) 등은 모두 그 기반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 혹은 그 사용자가 의식하고 있는 권력 관계는 무엇인지 등으로 확장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범주들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교수·학습 개요 수준에서의 제안에 머물러 이에 대한 적용과 그 실행 과정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들은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실제의 타당성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의 경험 재인을 위한 세심한 절차적 고려, 실천으로의 이행을 위한 교수적 환경 마련, 학습자의 학교급 및 수준 등에 따른 활용 텍스트 범위의 조정,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서의 주체성 보장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어휘문법 자원으로의 확장 및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적용과 그에 수반되는 실행 이슈 및 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 본 논문은 2022.10.31 투고되었으며, 2022.11.09 심사가 시작되어 2022.12.16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고법혜(2009), 「국어 높임법에 대한 문법 문해력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 현(2012. 2. 16.), 노 땡큐! ‘나이주의’ 사회, 한겨레 21, 검색일자 2022. 10. 16., 사이트 주소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393.html.
- 구본관(2012),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현황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연구』 30, 255-313.
- 구본관·신명선(2011),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7, 261-297.
- 구본관·신명선·서혁·이도영·민병곤·김봉순·원진숙·이관규·김정우·이경화·전은주·김창원·강보선·권순희·송영빈·박동열·신동광·김호정(2014), 『어휘교육론』, 서울: 사회평론.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규훈(2019ㄱ), 「틀 의미론의 어휘 교육적 적용 - 신문 텍스트의 어휘 타당성 탐구를 실제로」, 『문법교육』 36, 1-25.
- 김규훈(2019ㄴ),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의 설계 요소 탐색 -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54(3), 5-33.
- 김규훈(2022),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을 위한 개념적 은유 관련 교육 내용 연구」, 『우리말글』 93, 111-141.
- 김규훈·이원영·김효연(2018), 「생태학 관점의 비판적 언어인식을 위한 매체 수용의 학습 활동 설계」, 『국어교육』 161, 315-343.
- 김누리(2015), 「비판적 담화분석(CDA)을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미(2014), 「비판적 담화분석을 활용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성(2005), 「비판적 언어인식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5, 293-327.
- 김은성(2006), 「국어 문법 교육의 태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성(2013), 「비판적 언어인식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6, 139-181.
- 김현경(2015), 『사람, 장소, 현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현주(2012), 「종결어미 {-으세요}의 형성과 화행의 편향적 관련」, 『형태론』 14(2), 184-207.
- 김효연(2021), 「비판적 언어인식을 위한 문법교육 내용 연구-복합양식 텍스트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종철(2016), 「비판적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비판적 담화분석 활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2015), 「한국어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 『한국언어문화학』 12(2), 97-124.
- 민현식·구본관·민병곤·김호정·권순희·왕단·박재현·조형일·주세형·신명선·김은성·강남옥·권은선·남가영·남지애·이기연·이해숙·강보선·오현아·이관희·박혜경·제민경·조진수·최소영·강효경·박혜진(2019), 『국어 의미 교육론』, 파주: 태학사.
- 민현식·신명선·오현아·이지은·안장호·조진수·박진희(2018), 『언어와 매체』, 서울: 천재교육.

- 박혜진(2021), 「공정언어(PC어) 사례를 활용한 단어 형성 교육 방안」, 『문법교육』 42, 59-88.
- 박혜진(2022), 「높임 표현 교육의 변화 양상 고찰」, 『제293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3-44.
- 서상범·이영돈(2016. 4. 20), ‘장애우 아닙니다. 장애인이 맞습니다.’, 헤럴드경제, 검색일자 2022. 9. 29, 사이트 주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420001084>.
- 신명선(2008), 「읽기 교육과 문법」, 노명완·박영목·박인기·박영목·이관규·최인자·이형래·박수자·정혜승·최미숙·심영택·옥현진·정현선·윤준채·이성영·이도영·이경화·손영애·이순영·이충우·이천희·김재봉·박정진·박태호·김라연·신명선·서유경·조병영·이재승·박영민·이정숙·김선민·이수진·서수현·조재윤·주세형·오택환·김지연(편), 『문식성 교육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신명선(2011),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국어과 어휘 교육 내용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0, 61-101.
- 신명선(2020), 「‘어휘 사용의 타당성 탐구 활동’의 교육 내용 설계 방향」, 『교육문화연구』 26(1), 261-288.
- 신성철(2016), 「대우법 변천과 삼강오륜」, 『영주어문』 32, 97-123.
- 심영택(2013), 「비판적 언어인식 교육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6, 45-75.
- 안주호(2022), 「최근 한국어 높임법 사용과 변화 양상」, 『동악어문학』 86, 121-143.
- 양세희(2018), 「문법 인식 확장에 따른 문장 성분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3(1), 5-36.
- 양영희(2017), 「사회 방언(학)과 비판적 언어인식에 근거한 문법교육의 방향 설정」,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 257-272.
- 오현아(2014), 「선어말어미 -시-의 문법 교육 내용 검토 - -시-의 청자 높임 기능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0, 157-180.
- 이수연(2012),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언어 사용 양상」, 『어문연구』 71, 79-91.
- 임지룡(2015), 「학교문법 상대 높임법의 새로운 이해」, 『한민족어문학』 69, 359-398.
- 임흥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장성아(2015), 「비판적 담화분석(CDA)을 활용한 국어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연구』 59, 213-244.
- 정경재·정연주·홍종선(2015), 「20세기 구어 자료에 나타난 하오체 어미 {-오}의 실현 양상 변화」, 『한국어학』 69, 277-311.
- 정동규·이성민·윤여경·권지현·권정현·김영서·이한별·이다솜·백승이·김효진·박가람·서채연·황지은·현재호·박민지(2021), 『예의 있는 반말』, 서울: 텍스트프레스.
- 조용준(2017), 「암시적 간접 화행 요인에 대한 고찰」, 『한말연구』 45, 185-226.
- 조진수(2015), 「문장 확대 교육 내용의 다층성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0(3), 268-295.
- 최윤선(2014), 『비판적 담화분석: 담화와 담론이 만나는 장』, 서울: 한국문화사.
- Clark, R., Fairclough, N., Ivanic, R., & Martin-Jones, M. (1990), “Critical language awareness part I: A critical review of three current approaches to language aware-

- ness", *Language and Education* 4, 249-260.
-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London: Longman.
- Fairclough, N. (2010),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2nd Ed.), London: Longman.
- Fairclough, N. (2011), 『언어와 권력』, 김지홍(역), 성남: 경진(원서출판 1989).
- Fairclough, N. & Wodak, R. (1997),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T. A. van Dijk(Ed),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London: SAGE.
- Ivanic, R. (1990), "Critical Language Awareness in Action", In R. Carter(Ed), *Knowledge about language and the curriculum*, London: Hodder & Stoughton.

언어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교육 내용화 방향 제안

— 대우법을 사례로

이진현 · 오지은

본고의 목적은 언어와 권력,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다루는 타당성의 관점을 교육 내용화하기 위한 방향을 대우법을 사례로 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타당성은 비판적 담화분석, 비판적 언어인식 논의로부터 국어교육에 수용되어 논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1) CDA 방법의 적용을 중시해 다양한 교육 방안을 탐색하지 못하였다는 점, (2) 언어에 대한 세 관점인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 사이의 관계를 간과했다는 점, (3) 언어를 사회의 반영물로 보아 사회에 대한 언어의 소구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 (4) 학습자의 텍스트 생산으로 실천이 한정되었다는 점을 기존 논의의 한계로 보았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1) 관점으로서의 타당성 복원, (2) 세 관점 간의 누진성 및 상호작용성에의 주목, (3) 언어와 사회 간의 쌍방향성 인식, (4) 언어 선택으로 구체화되는 언어에 대한 실천에의 구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방향성을 신분, 직업, 나이, 친소관계 등에 따른 사용이 타당한지의 의문이 지속되어 온 대우법을 사례로 적용하였다.

핵심어 언어 사용의 타당성, 비판적 언어인식, 비판적 담화분석, 대우법, 교육 내용

How to Design Educational Contents about the Validity of Language Use

— Honorifics System as an Example

Lee Jinhyun, Oh Jieun

This thesis proposes a direction for developing educational contents regarding the validity of language use. The perspective of valid language use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power, and ideology. The validity of language use has been incorporated into Korean Language Education from the discours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critical language awareness, and the educational suggestion regarding valid language use has been continuously made.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ere summarized into: (1) failing to explore various educational methods, exceedingly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CDA(Critical Discourse Analysis) method, (2) overloo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racy, appropriateness, and the validity of language, (3) viewing language as a reflection of society which led to overlooking language's appeal to society and (4) limiting learners' practice to text production. To complement these limitations, we suggested the (1) restoration of validity as a perspective on language, (2) attention to the overlap and interaction between the three perspectives, (3) recogni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society, and (4) designing practice about language selection.

The application of directions and examples of education content were shown on the honorifics system, as the issue of valid honorifics use has been continuously questioned and reconstructed by language users. This involves the issue of using honorifics based on status, occupation, age, and relationships etc.

KEYWORDS Validity of Language Use, Critical Language Awarenes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Honorifics System, Education Content